



스티브 윌킨스, 마크 샌포드 지
인종희 역

은밀한 세계관

송인규 (합신대 교수)

오래간만에 흥미롭고 유익한 기독교 세계관 책자를 읽었다. 이 주제로 쓰인 여러 책들 가운데 필자가 도움을 받은 책자가 몇 종 있는데, 이제 '은밀한 세계관' 역시 그 범주에 놓아야 할 것 같다.

서론적 안내

'은밀한 세계관'은 Hidden Worldviews: Eight Cultural Stories that Shape Our Lives이라는 미국 IVP 저술의 번역판이다. 저자는 두 명인데, 그 중 하나는 과거 Christianity & Western Thought라는 삼부작 가운데 2부와 3부를 공저한 스티브 윌킨스(Steve Wilkins)이고, 또 하나는 마크 샌포드(Mark Sanford)이다. 두 명 모두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교육이나 양육에 참여한 인물들로서, 이 책자의 이론 부분은 아마도 주로 윌킨스에게서, 실제적 삶의 정황에 대한 묘사는 주로 샌포드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자는 제목이 예시하듯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세계관 및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길잡이가 필요하다. 세계관 서적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최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관의 취급 영역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책자의 특이성

그러나 이 책자는 유형의 분석으로서 그 독특한 성격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도 두 가지 사항이 더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책자의 저술 목적이 특이하다. 이 책자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지하고 있는 세계관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의 세계관 책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진도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쓰인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도 주된 저술 목적이 그리스도인 자신의 변화에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책의 많은 내용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우리의 사상과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된 나머지 잘 보이지 않는 비기독교적 세계관들을 확신하고 펼쳐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11쪽).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일상 생활의 세계관"이라 부르는 것은 매우 적실(히) 여겨진다.

둘째, 책자의 저술 양식이 특이하다.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관 책자들은 명제적 기술 위주로 글이 쓰이지 아니면 이에 반대로 이야기체 스타일에 의지하는 양자택일의 경향을 띤다. 그런데 이 책은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인풋 보기에는 이 책자가 저자들의 말처럼 스토리텔링에만 진념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성경의 제시 방식이 그렇고 인간의 세계관 제시가 그렇다며 철두철미하게 이야기체를 고집한다. 그리하여 세계관의 구성 요소를 다섯 가지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것들을 이야기 → 정체성 → 확신 → 가치관/윤리 → 도덕/행동으로 묶어 낸다.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스토리텔링의 전형적 유형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웬걸! 실제로 책을 읽어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리 수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등장하고, 내용 전개 방식이 정제적으로 패턴화되어 있으며, 앞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저자들의 훌륭한 논변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물론 이런 식의 논

리적 전개 방식이 흔히 쓰여진 기독교 세계관의 책들(철학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보다 좀 더 비체계적이고 좀 더 유연하며 좀 더 스토리텔링 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읽는 이들은 이것이 책자가 만만치 않은 탄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자가 명제적 기술과 이야기체 스타일을 함께 아우른 것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처럼 '은밀한 세계관'은 저술의 목적과 저술의 양식에 있어서 독특한 책이다.

내용의 소개

이 책자는 부제가 나타내듯 복미 사회에 숨어 있는 8가지 세계관 — 개인주의, 소비주의, 쿨기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종교가 된 심리 치료 — 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우리의 귀에 익숙해 있으나, 어떤 것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이해가 가되 실상 무엇을 가르치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자아가 우주의 궁극적 실재이고, 각 개인은 자기 충족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 스스로 개인의 운명을 통제한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웃(및 공동체)을 인정하는 맥락에서의 "나" 혹은 "개인"을 말한다.

소비주의(consumerism)는 소비와 다르다. "소비"는 인간의 기본 생존 조건과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비주의는 이와 달리 처음에 상대적이었던 선 — 소비 — 을 결국 절대적 선으로 대체한 관점이다. 이로써 우리의 욕구는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정의되고, 우리의 가치관은 재정의된다. 성경은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의무와 책임)과 연관시킴으로써 우리가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국가주의(nationalism)는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보장 되는 세 가지 방식의 힘 -- 정치적·사회적 안정, 국 방력, 경제력 -- 을 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국가가 갖는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주의·협소 한 부족주의가 통제되고, 국가로 말미암아 공공선이 제공되며, 공동체나 민족 집단의 역사적 유산을 이 해하게 되는 이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의 정체성이 상대적임을 망각하고 국가의 이데올로 기를 절대화할 때, 국민으로부터 지나친 충성을 요구 할 때, 어느 한 국가가 기독교와 동일시될 때, 종교적 국가주의라는 교묘한 세계관이 구성을 부리게 된다.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에는 두 가지 형 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상 대주의로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고, 또 하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표기할 터인데) 좀 더 흔 한 형태의 입장이다. 도덕적 상대주의자는 객관적 진 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윤리적 영역에 적용 한 것으로서, 그러한 상대주의적 견해를 주장하는 지 적 근거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상대주의" 는 절대주의자들의 태도나 입장에 대한 "반발"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 선택의 이유가 지성적 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다.

그런데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든 결국 에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주장 근거가 얼마나 일관성 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입지가 결정된다. 불행 하게도 도덕적 상대주의는 그렇지 못하다. 첫째, 무 엇보다도 도덕적 상대주의가 참으로 확립되려면 객 관적 진리로부터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 적 상대주의는 후자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자체적 (自欺的, self-defeating)이 되고 만다. 둘째, 도덕적 상대주의는 일관성 있는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도 덕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고문을 당 할 때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셋 째, 도덕적 상대주의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약화시 키고 도덕의 공통 분모를 매우 낮춰버린다. 이것은

뉴에이지(the New Age) 운동은 심사리 정의를 내리 기나 묘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비경험적인 활동 및 사상의 혼합체이다.

때로 이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이나 평화와 같이 다소 좋은 범위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개 인적인 영적 변화는 우주적인 "새 시대"의 진조로 간 주된다. 이 운동의 사상적 원천은 민물의 통일을 꿈 꾸는 동양의 일원론과 절충주의(eclecticism)적 색채 를 띤 서양의 개인주의이다. 그러나 뉴에이지 사상은 우리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잘못 이해된 자기 구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 비 전이 결국 모순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포스트모던 부족주의(postmodern tribalism)는 미 국과 같이 다인종·다문화로 구성된 대형 국가가 하 나의 사회적 통일체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역사적 과 정 가운데 발생한 독특한 세계관이다. 20세기 초가 지 미국의 지배적인 문화 교류 모델이었던 융광로 (melting pot)는 곧 모자이크 모델로 표방되는 다문 화주의(multiculturalism)에 자리를 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포스트모던 니즘이 들이닥쳐 이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 다. 오직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족 (에를 들어 백인, 그 리스도인, 미국인) 만이 문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들은 이에 맞서 정치적 전략을 도입해서라도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부족주의는 다른 문화적 그룹에 대한 공감 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 부지 중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으나 돌아보게 만들며, 제도적 죄의 측면을 인식하 도록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 있게 보도록 한 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는 문화적정분을 전제하고, "내 부족"을 절 대화하며, 또 다른 권력 싸움을 조장하고, 부족 사이 에 피해 의식을 조장하며, 문화적 환원주의의 우 (愚)를 범한다는 점에서 비판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종교가 된 심리 치료(Salvation by Therapy)는 원래 데로 하자면 "심리 치료에 의한 구원"을 외치는 세계 관이다. 지지들이 선호하는 바 "은전한 심리학"적 관 점은 일반 심리학 (대표적 예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 석, 로저스의 인간중심 심리학, 스키너와 행동주의, 가족 체계 치료 등이 내포한 형이상학적 모델은 받 아들이기 거부하되 일부 치료 방법과 진박 측면은 공 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종교가 된 심리 치료"는 자신의 세계관을 종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절대 적 견해를 고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교가 된 심리 치료가 인간 본성에 관해 그릇된 가정/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야 한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 방법에 높은 수준의 결정론을 상정한다. 둘째, 인간 의 삶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셋 째,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 축소한다. 넷째, 종교가 된 심리 치료는 가치 중립적 심리학을 운운하 는데 이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들은 복미 사회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 계관을 이상과 같은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찰에의 촉구

『은밀한 세계관』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해서 그 책 자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 다. 우리는 두 저자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사회적·문화적 토양 속에 기독교적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은밀한 세계관』이 던지는 의미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필 자는 그러한 성찰 작업을 두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이상의 여덟 가지 세계관이 우리의 문화적 정 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개 인주의"의 사안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속 으로 들어가 보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더 많다. 개 인주의가 만가해하려면 권위, 공동체, 자아 인식 등



앞에 제시한 두 가지 문제점으로부터의 자연적 귀결 이다. 이처럼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일견 매우 타당하고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도 견지할 수 없는 모 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세계관인 것이다.

과학적 자연주의(scientific naturalism)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극적으로 물질이며, 다른 모든 비물질적 실체들 -- 하나님, 영혼 --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물질은 "자연 법칙"의 지배 하에 한결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 관계에 의거 해 사물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일 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특히 과거 여러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바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의 혁신에 의해 임 증되고 있다. 결국 과학적 자연주의는 우리가 이성에 의지한다면, 과학 기술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적 자연주의는 인 간의 위상을 축소시키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리성을 약화시키며, 도덕적 책임이나 진보·목적 등의 개념 을 설명할 수 없다.

의 관념으로부터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공동주의로부터의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북미의 개인주의와 차이가 많이 난다. 단지 젊은 세대의 경우 사회적 결연이나 선택 및 자기 표현에 있어서는 점점 더 북미의 개인주의를 닮아 간다고 하겠다. "소비주의"는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북미나 우리나라 큰 차이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도 경제 관념,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특징 등 거시적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국가주의"는 원래부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다. 한국의 국가주의가 그렇게 발전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우리는 미국에 비해 단일 민족 (완전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과 이데올로기상 대치하고 있다. (또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국가주의는 미국과 달리 기독교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한국 사회에 전보다 훨씬 더 유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성 윤리의 영역에서 그렇다.) 그러나 도덕적 상대주의 [저자들이 지적한 바] 철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은 거의 기술을 부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학적 자연주의"는 일부 지식층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뉴에이지"는 서양식 개인주의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도 크게 편만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주적 차원의 "새 시대"는 별 사상적 공감이나 문화적 표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개인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이고 동양 종교적인 행동과 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속주의와 뉴에이지는 사회적 친화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까지는 실제적 접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는 미국 특유의 현상이므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종교가 된 심리 치료" 역시 한국 풍토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다. 물론 앞으로 심리 치료나 상담 등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번성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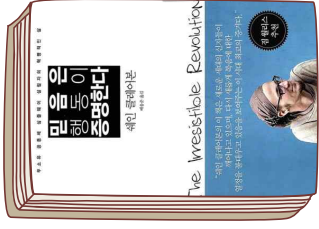
둘째,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은밀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속에 편만해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세계관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 또한 시급하고 중요하다. 여차하면 그 누군가 어떤 식의 책을 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한국 내에 풍미하는 "은밀한 세계관"으로 제시해 본다.

- 기독교의 — 자이주의
- 학벌주의 — 경제주의
- 쾌락주의 — 성공주의
- 외모주의 — 미국주의

"은밀한 세계관"은 북미의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분석하고 치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 번역 또한 수준급으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한 시 빨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은밀한 세계관"의 저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우 서울동신대학교 조식신학 교수이며, 새시대교회에서 장로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사범부스 대학에서 철학(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새 머리 여우 길들이기', '에베방 중의 기독교를 탐미하라', '다윗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그림된 성', '잃어버린 자이를 찾아서' (이상 MF), '어는 만물 우리는 에베(홍성사)' 등이 있다.



웨이 클레이본 저 | 배웅조 역
아버서원

민음은 사랑이 증명한다 웨이 클레이본의 민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한정호

사명에 대해 다시 질문하기

크리스천의 사명은 무엇일까? 웨인 클레이본은 책의 서두에서 이와같이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사명에 대한 물음과 답은 이 책의 전체를 감싸는 주제이다. 『민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의 제목처럼, 저자는 오직 '사명'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심정은 경이롭거나 불편할 뿐이다.

저자의 삶이 감동적이면서도 불편한 것은 그의 '급진적인 삶' 때문일 것이다. 대개 '급진적'(radical)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보적'(progressive)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가 쉽다. 하지만 저자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 자신을 '평범한' 급진주의자로 소개한다. 그는 '급진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뿌리(root)로 받아들이고서, 자신이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내려는 한 사람의 '평범한' 급진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다.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반면 그가 추구한 '삶의 방식', 곧 '심플웨이' 공동체의 시도는 보는 이에게 불편함을 준다. 심플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세 가지 비전에 따라 부유한 도시 속 '빈민가'로 들어갔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한 때만 말하라'라는 슬로건은 낮은 자리에 있는 유혹 및 불복종의 노숙자들과 인도의 환우들, 이라크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향해 철저히 지켜졌다. 개인의 회심과 변화가 우리와 세상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을 몸소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조직신학을 통한 것보다도 노숙하는 임마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는 그의 고백처럼, 저자는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책은 세상에 '사명', '정체성',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위의 세 가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천의 사명은 전통적인 교리를 믿는 것으로 충분할까? 믿음과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며, 어디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상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차례대로 정리한 후 결론적으로 함축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